

## 장편가문소설의 가독성(可讀性) 연구\*

- 삼대륙계 장편가문소설을 중심으로 -

김문희\*

<차례>

1. 머리말
2. 장편가문소설의 가독성(可讀性) 제고의 양상
  - 1) 잉여적 대화와 독자의 몰입과 거리화 효과
  - 2) 다양한 여성상의 재현과 중층적 욕망 표상
  - 3) 내면묘사의 극대화 와 위안의 효과
  - 4) 인물묘사의 추상화와 독자의 심미안의 충족
  - 5) 텍스트의 상호 관련성과 분석적 독서화
3. 장편가문소설의 서사전략과 가독성(可讀性)
4.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장편가문소설의 가독성(可讀性)을 제고하는 서사전략을 논의하는 것이다. 장편가문소설의 잉여적 대화는 정서와 감정적 측면에서 독자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면서 독자가 서사 세계에 몰입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서사 세계에 거리감을 느끼는 효과를 발휘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킨다. 장편가문소설에는 다양한 여성상이 재현되어 있다. 장편가문소설에는 표면적으로 요조숙녀형 인물의 구성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교적 이데올로기에서 한 발 빗겨서 있는 여성상도 재현되어 있다. 장편가문소설의 매력은 이런 다양한 여성상을 통해 사회적 규범과 내면적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대부 여성들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장편가문소설의 내면묘사는 사대부 여성 독자의 정서와 감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인문사회 분야: KRF-2008-359-A00060]

\*\*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 교수

정에 눈을 돌려 사대부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내면 풍경을 극대화하여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사대부 여성 독자들은 등장인물의 심정에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여 자기 연민을 느끼기도 한다. 장편가문소설의 인물묘사는 사대부 여성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물에 대한 미적 기준에 부합하여 사대부 여성 독자들의 심미안을 충족시킨다. 장편가문소설의 남녀 주인공은 관념적인 이미지로 추상화되는데 사대부 여성 독자들의 남녀 주인공에 대한 이상적인 관념을 표현해낸다. 장편가문소설의 상호 관련성은 각기 다른 두 작품의 인물과 내용이 상호 관련적으로 서술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독자가 분석적으로 텍스트를 해독하게 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주제어** 장편가문소설, 가해성(可解性), 흥미성, 가독성(可讀性), 사대부 여성.

## 1. 머리말

장편가문소설은 사대부 여성 독자층에게 주로 애독된 소설장르로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어 전편과 후편이라는 연작 형태뿐만 아니라 파생작까지 창작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장편가문소설은 대장편이라는 분량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독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독자들의 관심을 작품 내적으로 유인하며 가독성(可讀性)을 높이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독자가 장편가문소설을 탐독할 수 있도록 하는 텍스트의 가독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가독성(可讀性)은 독자가 장편가문소설을 얼마나 쉽고도 효율적으로 읽는가 하는 가해성(可解性)과 얼마나 재미와 공감을 느끼며 읽는가 하는 흥미성(興味性)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해성과 흥미성에 의해 독자는 장편가문소설을 익숙하고 쉽게 느끼며 흥미롭게 읽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장편가문소설은 창작방법나 구조원리<sup>1)</sup>, 장편화와 서술의 원칙<sup>2)</sup>, 독자층의 의식성향<sup>3)</sup>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특히 김종철은 장편가문소설의 주 독자층이 사대부 여성층이라는 사실<sup>4)</sup>을 언급하였다. 장편가문소설은 작품의 분량 때문에 단편소설과 달리 독자가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서사적 요소를 작품 곳곳에 배치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장편가문소설을 수월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서사적 특질이 지적된 바 있는데 이것은 장편가문소설의 가해성(可解性)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편가문소설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반복원리나 사건의 반복<sup>5)</sup>과 내용 총정리의 원리<sup>6)</sup> 등은 독자가 작품을 보다 효율적이고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가해성을 높이는 서사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해성(可解性)만을 안배하게 되면 독자의 흥미를 감소시켜 독자가 텍스트에서 지루함을 느낄 수 있고 가독성은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장편가문소설에서는 사대부 여성 독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 
- 1) 이상택, 『보월빙 연작의 구조적 반복원리』, 『백영 정병욱선생 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983. 조용호, 『삼대독소설 연구』, 계명문화사, 1996. 김홍균, 『복수주인공 고전 장편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1990. 정병설, 『완월회맹 연 연구』, 태학사, 1998.
  - 2) 최길용, 『조선조 연작소설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2.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2003, 태학사.
  - 3) 김종철, 『장편소설의 독자층과 그 성격』,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아세아문화사, 1994.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장시광, 『조선 후기 대하소설과 사대부가 여성독자』, 『동양고전연구』, 동양고전학회, 2007.
  - 4) 김종철, 앞의 논문 433~471쪽.
  - 5) 이상택, 앞의 논문, 730~733쪽. 최길용, 앞의 책, 85~87쪽. 임치균, 앞의 책, 205~207쪽. 장시광, 앞의 논문, 165~169쪽.
  - 6) 임치균, 앞의 책, 209~210쪽. 정병설, 앞의 책, 163쪽.

블러일으키는 서사내적 요소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논의에서 지적하고 있는 갈등 결합의 원리, 갈등 지속의 원리, 관계 인물 증대의 원리<sup>7)</sup>는 서사내의 갈등이 지속되고 복잡화되면서 독자의 관심을 끌어들이며 흥미성을 창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장편가문소설의 파노라마적 현실 반영, 주인공의 파란만장한 운명, 다양한 성격의 인물들, 복합적인 구성, 작품 속에 표현된 세계관이 독자를 사로잡았을 것<sup>8)</sup>이라는 지적도 장편가문소설의 흥미성을 언급한 것이다. 또한 장편가문소설의 한자어와 전고(典故)의 빈번한 사용은 사대부 여성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sup>9)</sup>이라는 지적도 사대부 여성 독자층이 지닌 계층적 교양에 부합함으로써 독자가 보다 텍스트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장편가문소설은 다양한 층위에서 독자의 관심을 끌어드리는 서사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고는 기존 논의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수용하면서 기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심층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장편가문소설의 흥미성을 창출하는 서사 내적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편가문소설의 가해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지만 흥미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지 못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장편가문소설의 흥미를 창출하는 서사 내적 요소에 주목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다른 고전소설보다 장편가문소설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대화의 측면, 여성 인물의 재현 방법, 내면묘사, 인물묘사, 텍스트의 상호 관련성의 측면을 포착하여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드리는 양상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본고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현몽쌍룡기(18권 18책, 한국학

7) 임치균, 앞의 책, 210~217쪽.

8) 김종철, 앞의 논문, 469쪽.

9) 장시광, 앞의 논문, 159~165쪽.

중앙연구원 소장본)>, <조씨삼대록(40권 40책, 서강대 소장본)>, <소현성록(15권 15책, 이화여대 소장본)>, <유씨삼대록(20권 20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임씨삼대록(40권 40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이다.

## 2. 장편가문소설의 가독성(可讀性) 제고의 양상

### 1) 잉여적 대화와 독자의 몰입과 거리화 효과

장편가문소설에는 서사의 긴밀한 진행과 관련이 없는 잉여적인 대화<sup>10)</sup>가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대화는 서사 세계에 대한 독자의 몰입과 거리화를 조율하는 효과를 드러내어 텍스트의 가독성을 향상시킨다. 잉여적 대화는 이전의 다른 고전소설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장편가문소설의 분량을 확대하는 데 일조하며 독자에게 새로운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장편가문소설에서 가족 구성원이 나누는 대화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온 가족이 모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시가(媿家)를 떠나는 며느리를 위로하는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는 비애나 분노의 성격을 띤다. 한편으로는 며느리나 자제를 품평하는 자리에서는 화락한 분위기를 드러내며

10) 장편가문소설의 대화에 대한 관심은 주로 <소현성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창권은 <소현성록>은 여성들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담을 빈번하게 수용하여 일상어에 공식적 가치를 부여하고, 사건전개에 있어서 대화체를 통한 극적 형식을 창출하여 여성인물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한편, 작품의 여성주의적 성격을 표출시키는 기반으로 삼고 있다고 하였다.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 『고소설연구』 4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309쪽. 조혜란은 <소현성록>의 묘사, 삽입문, 대화에 주목하여, 여성들이 구사하는 대화는 교양과 재치, 지혜가 드러난다고 보았다. 조혜란,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17집, 2008, 233~241쪽.

한담의 성격을 띤다. 실제 작품들의 문면을 예로 들어보자.

양시 입 이시나 말이 나디 아니하고 오직 벼개의 낫출 막아 무슈흔 누쉬  
 물 부은 듯 하니 석부인이 집슈탄 왈 텃디일월이 밝은디라 그디의 빙옥고절  
 과 숙덕성심을 비취시리니 무어시 붓그러워 문득 이 경상을 흐느뇨 천인이  
 더럽다 하고 만인이 춤 바타도 구가함문이 빅옥무하하고 황금이 단련흔 슈  
 형을 다 알고 흐믈며 아이 디감이 그터를 아란 지 오러니 무어시 붓그러오  
 미 이시리오 텃디조림하고 신명이 지방하니 익미흔 재 즈연 신빅하고 함히  
 흔 재 화를 바드리니 현데는 규각의 군지라 식견이 관대하여 명철흔 지피  
 이시리니 부운 곱흔 누명을 과도이 슬허하여 망신을 바리고져 흐느냐 뉴시  
 랑 부인이 그 운발을 헤뜰고 무빈을 바로 하여 단왈 청던빅일은 흐천노에도  
 역지기명이라 간인이 무상하여 이런 허무지언을 텃던의 주흔엿시나 그디의  
 쥬상 곱흔 형실을 누 모로리오 므음을 널니하고 눈을 써서 간인의 망흔물  
 불 썩롬이라 이러듯 초스하여 누설을 신설티 못하고 즈레 부모유테를 상히  
 오지 말나 조부인이 그 흐르는 누슈를 찢고 위로 왈 사롬이 만난 배 등한흔  
 변필시 놀납거니와 그디 만난 바는 계상의 업슨 변이라 너 므음이 빅옥 곱  
 거늘 부운 곱흔 누설이 무슴 관계하리오 그디는 설워 말나(<현몽쌍룡기>  
 6권 43~45면)

위의 예문은 <현몽쌍룡기>의 두 명의 며느리인 양씨와 정씨가 악인들  
 에 의해 모함을 받게 되자 시누이들이 양씨를 위로하며 주고받는 대화이  
 다. 시누이들은 천지의 이치에 빗대어 “천지의 해와 달이 밝아 그대의 얼  
 음과 옥 같은 높은 절개와 맑은 덕과 성실한 마음을 비출 것”이며 “지위  
 가 낮고 천한 노예도 푸른 하늘의 밝음을 안다”고 말하며 양씨의 결백함  
 을 확신하고 양씨를 위로한다. 시누들인 석부인과 유시랑 부인, 조부인이  
 이어서 양씨를 위로하고 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양씨가 결백하다는 점  
 을 알고 있다고 하며 슬픔을 이겨내라고 한다. 시누이들의 위로의 말은

동어 반복적이며 인물만 달리하여 양씨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다. 이 대화 다음에는 양씨와 정씨가 시아버지인 조공과 작별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이들의 작별인사도 시누이들과 양씨가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이후에는 양씨와 정씨가 할머니인 태부인과 시어머니인 위부인과의 작별인사를 나누는 대화 장면이 이어진다. 뒤이어 양씨와 정씨가 서로 이별의 정을 나누며 대화를 계속하는데 여기서도 슬픔을 표현하는 대화는 길게 이어진다.

서사의 빠른 전개를 위해서 가족 간의 이별은 간단하게 제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이러한 대화 장면은 독자가 서사 세계에 최대한 감정적 동일시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장편가문소설의 잉여적 대화 장면은 독자가 서사를 관조하고 관찰하는 자리에만 두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당사자들과 감정적 동일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누명을 입은 주인공의 억울함과 가족이 나누는 이별의 슬픔은 똑같은 이별 상황을 반복함으로써 점층적으로 강화된다. 이런 이유로 독자는 서사 밖에 있지만 양씨와 정씨의 사정을 알고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가족의 일부분이 된 것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여러 등장인물과 유사한 대화 상황은 반복되면서 서사 세계의 슬픔은 강화되고 독자는 이별의 슬픔에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독자와 서사 세계와의 거리감은 줄어들고 독자는 서사 세계에서 표현되는 극도의 슬픔과 비통함을 체험하게 됨으로써 서사 세계에 깊이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며느리나 자제를 품평하며 나누는 한담을 살펴보도록 하자.

석패 머리를 혼드러 왈 불연타 제공지 비록 아름다오나 엇디 참정의 쇼시적 얼굴의 밋츠리오 참정이 이에는 영풍이 쇠락하고 괴골이 준슈후여 몹고

즈티로운 거시 업사미어니와 쇼시적은 혼갓 고을만 아녀 즈티와 향기 어리  
 여 즈연 사름으로 혼여곰 빼 식고 므음이 녹게 하던 거시니 이제 쇼공즈들이  
 관옥 굿트나 엇디 미즈리오 화시 쇼왈 셔모의 참정 기리는 소리 너모 과도  
 이다 사름이 어려실 적은 약하야 즈연 즈티 잇느니 어느 아히 그러티 아널  
 거시라 참정이 독보히리잇가 혼믈며 사름이 보면 므음이 녹고 빼 식더라 혼  
 니 괴특디 아냐 해로운 얼골이로소이다 좌위 일시의 웃고 왈 화부인 말슴이  
 정합하다 혼대 석패 쇼흔 쇼왈 다른 부인은 밋디 아널시 울커니와 쇼부인은  
 쇼흔 보와 겨시니 아라실 거시어늘 엇디 내 말을 밋디 아니시느뇨 쇼시 흠  
 히 우셔 왈 나는 정신이 불명하야 어제 일도 닛겨늘 더욱 쇼시의 아의 얼골  
 이 엇던둥 알니오 지삼 생각하니 그장 곱디 아녀 덜으 등만 못하던 듯하이다  
 석패 풀을 짓고 손을 저어 거긱말이라 듯토니 석부인이 거동을 보고 평성  
 처엄으로 혼협이 미 〃히 열녀 호치 현출 왈 셔피 하 쇼급하야 하시니 저 〃는  
 그만 하야 두쇼셔 제인이 대쇼하더니 (<소현성록>4권 44~45면)

위의 예문은 <소현성록>에서 소씨 가문의 여인들이 모여 소현성과 소  
 현성의 아들인 쇼공자들의 인물됨을 평가하는 대화 장면이다. 석파, 이파  
 는 소현성의 서모로 소현성의 장점을 말하며 칭찬하고 화씨, 석씨, 소씨,  
 윤씨는 쇼공자들의 장점을 말하고 이들을 추켜세우고 있다.

이러한 한담은 장편가문소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혼인날  
 며느리를 자랑하기도 하고 평가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가족 모임에서 자  
 제들 자랑을 하고 평가하는 형태를 띤다. 독자는 가족들이 모여 한가롭게  
 이야기하는 자리에 초대되어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대화에서 평가되  
 는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듣게 된다. 소현성은 모든 면에서 단정  
 한 정현군자다운 면모를 지니고 있어서 <소현성록>에서 긍정적인 인물  
 로 평가된다. 그러나 석파가 소현성을 “아름다운 태도와 향기가 어리어  
 자연히 사름의 빼가 시리고 마음이 녹게” 한다고 추켜세우자 소현성의 부

인 화씨는 소현성의 이러한 면모를 기특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화씨의 이 말은 서술자에 의해서 긍정적인 가치로 평가되었던 소현성의 냉철하며 이성적인 면모가 다른 시각으로 보면 부정적인 가치로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곧 가족 구성원들의 한담은 서사의 긴밀한 전개를 위해서 생략될 수도 있지만 주인공들의 장점이 오히려 폄하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되면서 독자는 서술자가 말하는 대로 인물을 바라보지 않는다. 독자는 인물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몽쌍룡기>와 그 후편인 <조씨삼대록>에도 여성 주인공의 정숙한 모습을 낮게 평가하거나 남성 주인공의 군자다움과 영웅호걸다운 면모를 비판하는 한담이 자주 등장한다.

<현몽쌍룡기>의 여성 주인공인 정씨와 양씨는 부덕과 현숙함을 지닌 여성으로 시종일관 서술자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며 독자가 이 인물의 감정에 동조할 수 있도록 서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조씨 가문의 며느리인 정씨와 양씨의 성격을 평가하는 자리에서는 이들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제시되어 독자가 정씨와 양씨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현몽쌍룡기> 3권의 37~41면에는 조성의 아내 양씨가 혼인하여 들어오자 조씨 가문의 여인들이 태부인을 모시고 한담을 나누는 장면이 있다. 서모인 화씨가 정씨와 양씨의 외모와 성품을 칭찬하자 시누이들은 화씨와는 다른 시각으로 정씨와 양씨를 평가한다. 양씨는 “겨울날이 따스함” 같고 “냉엄한 면”이 있어서 “보기에 냉엄하고 교만하여 반드시 시댁의 많은 사람을 누르고 첫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고 평가된다. 정씨는 “봄날이 온화한 것”처럼 온화한 면이 있으나 “어리석고 풀어지니 큰일에 강단이 없을 것 같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시누이들의 대화에서 독자는 사건의 진행 속에서 간파할 수 없었던 양씨와 정씨의 성격에 대한 다른 관

점을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현몽쌍룡기>와 <조씨삼대록>의 누이와 매형들이 군자형 인물인 조성과 영웅형 인물인 조무의 사람됨과 행동을 평가하면서 나누는 한담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조씨 가문의 누이와 매형들은 조성이 매사에 과묵하고 냉철하며 이성적으로 행동하자 조성의 행동을 곧잘 놀리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조무의 호탕하고 풍류스러운 행동과 성격을 들추어내며 조롱하기도 한다. 서사의 논리 안에서 이러한 한담은 오히려 서사 전체의 통일성이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서사의 일관성을 저해하면서까지 이러한 잉여적 대화를 마련하는 것은 독자가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서사 세계에 대한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2) 다양한 여성상의 재현과 중층적 욕망의 표상

장편가문소설에는 다양한 여성상을 재현하여 사대부 여성이 당위적으로 가져야 할 부덕(婦德)이 강조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덕의 강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중층적으로 표상되어 있다. 장편가문소설의 여성 주인공은 한결같이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준수하며 남편에게 순종하고 덕을 지닌 요조숙녀로 형상화되어 있다. 사대부 여성 독자들은 수신서나 교훈서에서 배운 내용을 장편가문소설의 여성 주인공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러한 내용을 모방하여 부덕(婦德)과 여도(女道)를 내면화하게 된다. 이 때문에 사대부 여성 독자들은 장편가문소설의 여성 주인공들의 삶의 방식에 찬사를 보내는 것이다. 사대부 여성 독자들은 장편가문소설에서 형상화되는 여성 주인공을 통해 여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적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사대부 여성 독자들이 장편가문소설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이런 이유뿐만은 아니다. 장편가문소설은 표면적으로는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준수하는 여성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덕과 여도의 강요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여성의 욕망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장편가문소설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남편의 다른 여자에 대한 질투가 동정적으로 서술되기도 하고 부덕과 여도의 강요에서 벗어나 아내가 남편의 상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성 인물들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소현성록>에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질투를 드러내며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여성 인물들이 나온다. 소현성과 의남매를 맺는 윤씨와 소현성의 누나 소월영이 그런 인물이다. 윤씨는 소현성이 순무어사로 나갔다가 억울한 사연을 듣고 소씨 집안으로 데려와 의남매를 맺는 여인이다. 윤씨의 남편인 유생이 첩을 두지 않고 윤씨만을 사랑하자 소월영의 남편인 한생은 이런 유생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한생은 윤씨와 유생 부부 관계를 시험하기 위해서 유생이 윤씨를 비천하게 여겨 첩을 들여 정실로 삼고 윤씨를 첩으로 삼으려 한다고 거짓말을 한다. 윤씨는 일찍 부모를 잃고 소씨 가문에 의탁한 자신의 처지를 늘 비판하고 있는데 한생의 말을 듣고는 질투심과 분노로 몸을 띤다. 남편인 유생이 술에 취해 들어와 농담을 걸자 윤씨는 남편의 경박함을 꾸짖고 자신의 불만을 토로한다. 윤씨는 급기야는 머리를 자르고 절에 들어가겠다고 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남편에 대한 분노로 몸져눅게 된다. 그러나 남편이 첩을 얻겠다고 하자 분노하는 윤씨의 행동과 말은 <소현성록>에서는 결코 부정적으로 서술되지 않는다. 오히려 유생은 윤씨의 분노를 풀기 위해 윤씨를 위로하고 애정을 드러낸다. 후에 한생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윤씨의 오해가 풀리자 유생은 “내가 비록 비루하지만 부인의 정황을 슬프게 여겨 흰 머

리가 되도록 같이 늙으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하지 않은 말을 이유 없이 덮어씌우고 성을 내니,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함이 이처럼 심할 줄을 어찌 알겠는가?”하며 오히려 윤씨를 달래고 있다. 소현성이 아내 화씨의 투기를 꾸짖고 엄정하게 대하는 것에 비하면 유생은 윤씨가 질투를 드러내고 남편을 책망해도 오히려 윤씨의 몸이 상하는 것을 걱정하고 애를 태운다. 윤씨는 질투의 감정을 모두 표출하는 여성 인물이고 유생은 그런 윤씨를 걱정하는 애처가인 셈이다.

또한 소월영은 <소현성록>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부부 관계를 보여주며 남편과 시부모의 박대에 코웃음을 친다. 그러나 소월영은 <소현성록>에서 부정적으로 형상화되지 않는다. 소월영 부부의 모습은 구체적인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족들의 말이나 소월영이 자신의 과거사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데서 이 부부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양부인은 윤씨가 남편을 오해하고 병이 들자 윤씨에게 충고하며 “무릇 여자란 것은 온순하고 겸손해야 하는데 너와 월영은 방자하기를 마음대로 하여 늘 지아비를 꾸짖고 재단하는 것을 내가 이미 그릇되었다고 여겼다.”고 말한다. 양부인은 윤씨와 소월영이 온순하고 겸손한 부인이 아니라 남편을 좌지우지하는 아내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소월영과 한생 부부의 모습은 운성의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형씨가 고난을 겪자 형씨를 위로하기 위해 소월영이 자신의 과거사를 말하는 데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소월영은 한생과 시부모가 첩인 영씨를 편애하며 소월영을 박대하자 심한 고통을 겪는다. 세월이 흘러 한생과 시부모가 다시 소월영을 우대하자 소월영은 영씨의 질투가 싫어 시가에 살지 않고 친정인 소씨 집안으로 옮겨와 일 년의 절반 이상을 친정에서 보낸다. 그러면서 소월영은 “지금은 상서가 범사를 정대하게 하고 나를 공경하지만 젊었을 때에는 매우 우스웠습니다. 지금은 창기들과 영씨를 박대하니 딱 맞지요?”하며 한

생을 조롱하기도 한다. 영씨에게 빠져 자신을 박대하던 남편의 과거사를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코웃음을 치며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타박하고 있는 것이다. 소월영의 이런 모습은 <소현성록>의 요조숙녀형 인물인 석씨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소월영은 소씨 가문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충고하면서 자기 주관을 시원하게 말하는 현실적인 여성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소현성록>의 윤씨와 소월영의 말과 행동은 곧 부덕과 여도를 강조하는 사대부 여성들의 규범적 삶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윤씨와 소월영의 모습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여성상을 재현한 것일 수도 있다. 사대부 여성 독자들은 윤씨와 소월영의 모습에서 부덕과 여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내면적 욕망은 <현몽쌍룡기>와 <조씨삼대록>에도 나타난다. <현몽쌍룡기>와 <조씨삼대록>에는 조씨 가문의 시집간 딸들이 등장하여 조씨 가문의 가족 모임에 참여하고 자주 한담을 나눈다. 이들은 조숙과 위부인의 딸인데, 첫째 조숙혜는 석학사의 부인이 되고, 둘째 조주혜는 유학사의 부인이 되며, 셋째 조필혜는 소학사의 부인이 된다. 이들은 구체적인 사건과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친정에 머물고 있으면서 남편들과 함께 조씨 가문의 대소사에 대해 자신의 소견을 말하거나 주인공의 행동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현몽쌍룡기>에는 조숙혜와 석학사 부부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들 부부의 모습은 조무의 입을 통해 묘사되고 있다. 조무는 누이 조숙혜가 병이 들자 병문안을 가게 되는데 석학사가 아내에게 찢찢 매는 모습을 보게 된다. 조무는 석학사가 부인 곁에서 부모가 앞에 있는데도 눈물을 흘리고 발을 구르며 “사람을 살려주십시오”하고 슬퍼하던 모습을 말하며 이

모습이 참 가소로웠다고 석학사를 조롱한다. <조씨삼대록>에서도 조숙혜와 석학사 부부가 등장하는데 석학사는 한 명의 첩도 들이지 않고 조숙혜와 돈독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그래서 조씨 가문의 여성들은 조숙혜를 복이 가장 많은 여인으로 평가하여 부러워하기도 한다. 조숙혜는 남편에게 자기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여인이며 석학사는 부인 조숙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애처가라고 할 수 있다.

조씨 가문의 둘째 딸인 조주혜와 유학사 부부의 모습은 조성의 말을 통해 묘사된다. 유학사는 청주에서 데리고 온 두 명의 창기를 가까이하다가 조주혜의 분노를 산다. 조주혜가 질투와 분노로 병이 들자 유학사는 “수 없이 죄를 청하니 어진 부인은 화를 푸시오. 내가 청주에서 데려온 두 창기를 오늘 당장 내보내고 부인의 뜻을 얼마다 말씀대로 따를 테니 죄를 용서해 주시오”하며 조주혜에게 쉴 새 없이 빈다. 이런 모습을 본 조성은 유학사가 가소로웠다고 말한다. 뒤이어 서술지는 “조주혜가 투기가 많으며 유학사가 본래 통이 크고 훌륭한데 생각이 넓은 위인이지만, 아내를 아끼는 것은 하나의 병통이라 행여나 아내가 상황까 두려워하여 아내에게 음식을 먹이려 하다가 조성이 이것을 본 것이었다”고 하며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있다. 조주혜는 남편이 첩을 데리고 오자 질투심을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여인이고 유학사는 아내에게 찢찢 매는 소심한 공처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현몽쌍룡기>와 <조씨삼대록>에는 남편에게 질투의 감정을 표출하는 아내의 모습과 아내에 대한 사랑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남편의 모습이 드러난다. 사대부 여성들은 표면적으로 부덕과 여도를 내면화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지만 이면적으로 질투와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고, 남편에게 사랑받으며 여성적 행복을 꿈꾸기도 한다. 장편가문 소설은 이러한 중층적인 욕망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사대부 여성 독자

들에게 더 많은 매력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유씨삼대록>의 유세창의 아내 설씨의 삶의 방식도 주목된다. 설씨는 일찍 부모를 잃고 남장을 하여 청성산에서 난세를 보내고 있다가 유세창을 만나 유세창의 두 번째 부인이 된다. 설씨는 검술과 활솜씨가 뛰어나며 영웅호걸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이다. 설씨는 자손을 낳아 친정 부모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유세창을 선택하고 남장을 하고 과거에 급제하여 임금 앞에서 자신의 과거사를 말하여 유세창과 혼인하기를 바란다. 임금의 명령으로 유세창과 설씨는 혼인을 한다. 유세창이 첫째 부인 남씨와는 소원하고 설씨만을 사랑하자 설씨는 유세창과 남씨의 부부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시가를 떠날 것을 결심한다. 설씨는 “내가 본래 영웅호걸의 뜻을 두었는데 몸이 여자로 태어났으니 기구한 운명이다.”라고 탄식하며 남편의 총애에 연연하지 않고 의연하게 시가를 떠나온다. 그리고 도성 남쪽에 집을 짓고 사당을 세워 친정 부모의 제사를 지내고 아들이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하며 세월을 보내게 된다. 설씨의 삶의 행적은 분명히 ‘여성적 삶이란 이리이러해야 한다’는 당대의 사회적 통념과는 다른 것이다. 임금도 설씨의 이런 모습을 막거나 금지하지 않고 설씨의 집에 ‘설씨충렬문’이라는 현판을 내리기까지 한다. 태후와 황후는 그 집 후원에서 검무와 활솜씨를 구경하며 감탄하고 임금은 설씨에게 ‘신사장군’이라는 별호를 지어주고 장군의 인(印)을 주면서 황후를 모시라고 한다. 곧 임금은 설씨를 사대부 가문의 아녀자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개별적 자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서술자 또한 설씨의 삶에 대해 “풍양의 봉록과 벼슬을 받지 않고 도주하니 충이요, 영릉후를 알아보고 따라오니 협기(俠氣)이고 한번 과거장에 들어가서 문무 장원을 하니 재주가 높음이며, 시택에 들어가 남편의 총애를 받기를 사양하고 물러나 부모의 사당을 지키니 효와 의(義)가 한가지로 빛나는 것이었다. 높은 이름을 명나라 조정

에서 겨울 사람이 없었다.”고 논평하고 있다. 설씨는 부덕과 여도를 실천하는 요조숙녀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 남편의 애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욕망대로 살아간다. 그러나 당대의 사회에서 사대부 여성들이 설씨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유씨삼대록>은 설씨의 삶에서 사대부 여성들이 규범으로 삼고 있는 삶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독자들은 <유씨삼대록>을 읽으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지니고 있는 삶의 한계를 넘어서 자유로운 삶을 꿈꿀 수도 있는 것이다.

### 3) 내면묘사의 극대화와 위안의 효과

장편가문소설은 여성의 내면묘사를 극대화하여 독자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삶에 위안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장편가문소설만큼 여성 인물의 내면심리를 극대화하여 묘사하고 있는 고전소설도 없을 것이다. 장편가문소설에는 고난을 받는 여성 주인공의 내면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는 처나 첩의 내면도 모두 세밀하게 묘사된다.

다음 예문은 <조씨삼대록>의 악녀 괄씨가 간계를 부려 조월염의 어린 아들을 죽이자 조월염이 아들을 잃으면서 느끼는 처절한 마음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다.

④ 조시 츠시를 당하여 설운 흉당이 칼을 숨긴 듯 분함을 이기지 못 혈누를 뿌리고 흉아를 봉프른 얼굴과 진하여 가는 형상을 눈으로 차마 보지 못홀 너라 일명이 수유간의 이르락 쓰치록 흐눈 비 일과지인이라도 타루홀 비러라 조시 손으로 어로만지며 낫찰 다혀 부르지져 우리 왈 흉아 네 엇지 천수 만환의 어미로 설우물 더으니 나를 바리고 황탄을 향코져 흐는다 네 어미 적악이 네게 밋쳐 청빙옥골이 맞는도다 물노조츠 소리 처절하고 츠믄 못 견

더여 익원비곡하니 유량 등이 불승참담하여 감늬 비오듯 하는지라..... 조시 시신을 밧들고 길이 누어 업연이 괴운이 막혀 인스를 아지 못하니 시비 유량이 구하여 반향의 정신을 출혀 시로이 부르지지 호곡하니 세상의 머물 쫓이 업서 막히기를 즈조하니 좌위 참불인견이러라 ⑥초시 조시 으즈를 상하므로 비회 일 〃 추가하야 인읍유혈이 몸의 저 〃 즈모의 유즈 생각는 정을 아올나 그 영괴 〃 특하미 안전의 버러 축쳐의 감찰이라 구곡이 춘단하니 츄모 음식을 나리오지 못하고 머리를 종일 벼개의 더져 스스로 일명이 세상의 이시물 한하니 혈늬 진하고 화용이 초고하야 옥골 설뵈 드러나고 축너 되엿는지라 유량이 슬허호를 마지 아니하더라 두시 밤을 타 가마니 문을 열고 심복 시녀 두어술 거느리고 원둥의 니르러 조시를 위로하고 목 〃 히 척연하니 조시 반 갑고 감격흔 등 슬프미 오너 미여지는 듯 다만 익위 산 〃 하니 빅년해 추우의 처젓는 듯 니해 바름을 만난는 듯 빅티만광이 칠아암실을 붉히는지라 (<조씨삼대록> 18권 66~77면)

양인광의 두 번째 부인인 곽씨는 뛰어난 미모를 지닌 첫 번째 부인 조월염을 해치려고 한다. 곽씨는 양인광과 시부모에게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약을 먹고 무고사를 꾸며 조월염을 공경에 빠트린다. 또한 곽씨는 맹생을 사주하여 조월염이 음란한 여인인 것처럼 누명을 씌우고 조월염의 아들도 맹생의 자식이라고 양인광을 속여 조월염의 아들에게 독약을 먹여 죽인다. 그러나 양인광은 판단력이 흐려져 아들의 죽음을 방치하게 된다.

⑥는 어린 아들이 독을 먹고 얼굴이 퍼렇게 변하고 숨이 다해가며 죽는 것을 바라보는 조월염의 처절한 심정이 드러난 부분이다. 조월염의 분노와 슬픔이라는 내면심리가 먼저 드러나고 뒤이어 조월염의 절망적 행동이 결합되어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고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조월염의 심정은 분노로 변했다가

치절한 슬픔으로, 다시 절망으로 변한다. 이러한 감정의 변이는 피눈물을 뿌리며 우는 모습으로, 아들의 시신을 안고 울면서 치절하게 부르짖는 모습으로, 여러 차례 혼절하는 모습으로 구체화되면서 인물의 내면적 슬픔과 분노는 선명하게 드러난다.

⑥는 아들이 죽은 후에 조월염이 느끼는 슬픔을 묘사한 것이다. 조월염의 슬픔은 내면에서 촉발된 감정과 그 감정에 따른 인물의 행동이 동심원적으로 반복되어 표현된다. 조월염은 죽은 아들을 떠올리며 “슬픔을 느끼고 슬피 울며 피눈물이 젖고” “애간장이 끊어져 식음을 전폐하는” 것으로 내면적 감정과 인물의 행동이 묘사되어 아들을 잃은 한과 슬픔이 유사하게 반복된다. 조월염을 바라보는 유모와 두씨도 조월염과 똑같은 슬픔을 느끼게 된다. 골수에 박힌 조월염의 슬픔은 “꽃 같은 얼굴이 비쩍 말라 뼈가 흰 피부 사이로 드러나 해골처럼” 묘사되거나 “백년화가 가을비에 처진 듯”, “배꽃이 바람을 만난 듯”한 힘없고 애처로운 외면 모습으로 묘사되어 내면의 한과 슬픔을 드러낸다.

이처럼 <조씨삼대록>에서는 여성의 내면묘사가 여러 부분에서 극대화되어 표현된다. 이러한 조월염의 한과 슬픔은 광씨의 악행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인 양인광의 어리석음에서 기인한다. 의식 있는 독자라면 이러한 사단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조월염이 느끼는 고통과 슬픔은 서사 속의 착하고 순한 여성 주인공에게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다처제에서 살아가는 조선시대 사대부 여성의 삶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대부 여성들의 현실적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슬픔과 조월염의 내면적 슬픔이 겹치면서 독자의 공감과 호응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 한 명의 남편을 두고 여러 부인이 권모술수나 암투를 부리며 라이벌을 해치거나 죽이는 일은 그리 흔치 않는 일일 것이다.

다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되거나 남편에게 박대당하는 슬픔은 일부다처제에서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한 경험은 작가가 장편가문소설에서 여성의 내면심리를 극대화하는 서사적 요소를 만들게 하고 사대부 여성 독자들은 장편가문소설을 읽으면서 자신의 현실과 인물의 상황을 연관짓게 된다. 사대부 여성 독자들의 내면에 응어리진 슬픔이 조월염의 내면심리와 겹치면서 사대부 여성 독자들은 현실의 삶에서 겪는 애환을 소설의 독서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장편가문소설에는 질투심을 느끼는 여성들의 심리도 보다 본격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장편가문소설에서 여성의 질투심은 부덕(婦德)이 부족하거나 성품이 악한 여성이 느끼는 감정으로 치부되어 교화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장편가문소설에서는 이러한 여성의 질투심은 모두 부정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것으로 그리기도 한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초일 화시 연상의셔 신부의 용광을 보고 악연호야 헤오디 이 진짓 상셔의  
 비필이라 진실로 듯던 바의 디나도다 이러듯 생각호매 심시 참담호야 석상  
 의 겨유 춤고 침소의 도와 상셔의 자죄를 아조 굿츠리라 헤여 단장을 벗고  
 셔안의 업더여 즈가신세 박명호를 슬허호다가 인호야 설음과 애돌오미 병출  
 호야 흥격의 막히니 혼미호야 인스를 모르디니 뜻 아닌 상셔 드러와 더의  
 업더여시물 보고 전긋티 투긋호민가 호야 스스로 상의 오르디 데 전혀 동티  
 아니커늘 쏘흔 조급호야 즈결호미 잇는가 의려호야 띄를 곳쳐 미고 나아가  
 년호야 브르디 디답디 아니커늘 친히 붓드러 보니 인스를 모르거늘 급히 슬  
 펴보매 각별흔 배 업스나 슈족이 어름 곳타야 혼절호엿거늘 시녀로 약을 프  
 러 친히 먹이니 반향이 디나매 숨을 내쉬며 인스를 아디 다만 귀밧티 눈물이  
 니움차 흐르며 오히려 상셔의 와서물 모르고 입 안히 닐러 왈 심규 폐륜지인  
 이 되야 오기계삼창 청신빅두음을 내 몸의 당호니 차류호박침과 흑유몽너시

를 읊흐리로다 현대 상세 시녀를 명호야 부인의 경상으로써 누설티 말나 호  
고 유모를 불러 화시를 자리에 쉬게 호고 즈개 쏘흔 의관을 그르코 나아가  
자더니 (<소현성록>2권 52~53면)

<소현성록>의 화씨는 소현성의 첫 번째 부인으로 소현성이 두 번째 부인인 석씨를 맞이하자 심한 질투를 느끼고 있다. 위의 예문에서는 화씨의 심리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화씨의 질투를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도록 묘사하고 있다. 화씨는 자신보다 뛰어난 미모를 지닌 석씨를 보고 매우 놀라고 참담함을 느낀다. 그러면서 화씨는 남편이 이제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설움과 절망을 느끼며 혼절하기까지 한다. 소현성이 혼절한 화씨에게 약을 먹이자 화씨는 눈물을 흘리며 사마상여가 탁문군을 버리고 첩을 들이려할 때 탁문군이 붙었다는 <백두음>이라는 시를 읊얼거린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소현성도 이런 화씨를 가엾게 여겨 신혼 첫날밤을 신부와 보내지 않고 화씨와 보낸다. 질투하는 화씨의 행동은 여러 차례 시어머니인 양부인과 남편인 소현성에 의해 꾸중을 받으며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서술자가 어떠한 가치 평가 없이 화씨의 심리만을 소상하게 묘사할 때는 화씨의 질투심에 대한 가치 판단이 중지된다. 위의 예문에서는 화씨의 질투심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서술자의 언술이나 평가가 개입되지 않고 화씨가 느끼는 극도의 놀라움과 슬픔, 좌절만이 표현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독자는 화씨의 내면심리를 액면 그대로 바라보면서 화씨의 질투심을 더 이상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동정의 눈길을 보내게 된다. 독자는 화씨의 슬픔과 좌절을 이해하고 화씨의 처지를 동정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화씨의 내면심리는 일부다처제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현실적 삶에서 나오는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어서 사대부 여성 독자들의 보다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자기보

다 월등한 남편의 여자를 질투하는 화씨의 심리는 현실적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이다. 여기서 독자는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일상적 감정을 소설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현실적 삶의 고단함을 객관적으로 대면하고 삶의 고단함을 위로받을 수 있게 된다.

#### 4) 인물묘사의 추상화와 독자의 심미안의 충족

장편가문소설의 인물묘사는 묘사 대상의 이미지를 추상화하는 과정을 통해 사대부 여성 독자들이 지니고 있는 심미안을 충족시킴으로써 가독성을 확보한다. 인물묘사는 장편가문소설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며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묘사는 사대부 여성 독자들이 익숙하게 보아왔던 재자가인(才子佳人)형 남녀 주인공에 대한 기대지평을 그대로 재현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장편가문소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남녀 주인공을 묘사하는 부분이다.

㉠ 진양공쥬 통지의 네복을 꺾초아 슈좌의 거허여시니 빗난 광휘는 태양이 동턴의 오르매 명광이 만국을 통도하고 은섬이 벽공의 한가흐매 건곤이 병명흔 듯 일쌍 추파는 턴디의 정기를 오롯하고 팔즈 춘산은 강산의 슈기를 온전이 거두어시니 높고 빛나며 곱고 싸혀나니 쥬옥의 정치와 화월의 고오물 비홀 배 아니어늘 늑척 향신의 층 "흔 당복과 낭 "흔 옥결이 품질의 맛그즈니 의희히 광한턴디의 우랑을 턴손이 상접하고 방불이 승화턴상의 왕피군선을 부회흔 듯하니 진공이 투목 험시의 심흔이 표령하여 지척 턴안의 숙업흔를 니줄 듯하나 이 쏘흔 태산의 무거움과 하히예 김흐미 잇는디라 숙연이 네를 잡아시나 니심하흔물 마디 아니하더라 삼천분디와 황친국족의 절시 명엽이 그득하여 옥경선지 도회흡 꺾더니 진양이 한번 좌의 나매 등원신월이 정치를 흘니매 만턴성뒤 빗출 김춤 꺾호니 ㉢태휘 새로이 흠이흐사도라 모든 부마를 보시니 제인이 비록 노쇠 다르나 다 명문지스로 만승의

간선호신 배라 혼결궤치 풍뉴 준아호여 혹 돈후후터호 니도 잇고 혹 준매호 상호 영결도 이서 개 〃 히 뉴진당의 풍치로 금년의 후미를 누리나 홀노 진양 도위 싸혀난 문질과 표연호 신치 단구의 치봉과 악와의 준마와 궤호니 청년 이 방쇼호 바의 천승의 면복으로 패옥과 보블이 준엄호 테위를 도아시며 면 뉴와 적의 신치를 빗내여시니 의 〃 히 옥슈 풍전을 넘호여시며 목난이 이술 을 썰친 듯 쉼슈봉경은 사일이 당강의 비취고 팔치 미우는 문명이 녕 〃 호여 관옥 궤호 면모의 부용 빵험과 도췌홍순이 미인의 고은 거술 겹호여시니 엇 디 왕무즈의 준상함과 진쇼스의 청쇄호 기질 분이리오 동일이 가이호고 하 일이 가외호여 모든 친왕 부마를 니르디 말고 텃하의 싹이 업술 배로디 오디 공췌의 텃향국식과 성즈광휘 서로 디호매 상닌과 서봉 궤고 궤금과 보옥 궤 호니 (<유씨삼대록>3권 49~50면)

위의 예문에서 초점화되고 있는 인물은 <유씨삼대록>의 남녀 주인공인 진양공주와 유세형이다. ㉑는 유세형의 시각으로 진양공주의 모습이 묘사된 것이고 ㉒는 태후의 시각으로 사위인 유세형의 모습이 묘사된 것이다.

㉑에서 진양공주의 모습은 진양공주의 성스러운 분위기, 눈빛, 눈썹, 자세의 순서로 묘사되고 있다. 여기서 진양공주의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라는 원관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동원되는 보조관념은 대부분 시각적인 색채어나 미사어구이다. 그러나 보조관념으로 동원된 시각적인 색채어나 미사어구는 원관념인 인물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동원된 것이지만 오히려 원관념의 이미지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한다.

진양공주의 아름다운 광채는 “태양이 중천에 올라 밝은 빛이 온 나라에 비취고”, “달이 푸른 하늘에 한가하고 하늘과 땅이 함께 밝아지는 것” 같다고 표현되어 있다. 진양공주의 아름다움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

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연 현상을 빗대어 묘사하고 있지만 보조관념으로 동원된 자연현상이 원관념인 진양공주의 아름다움을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관념인 진양공주의 아름다움과 보조관념인 자연 현상간의 유사점은 많지 않기 때문에 보조관념을 통해 원관념의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보조관념이 되는 자연 현상을 나열하거나 자연 현상을 과잉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관념의 이미지를 흐릿하고 추상적으로 만들게 된다.

또한 진양공주의 눈빛은 “추파(秋波)”라는 아름다운 여성의 눈길을 묘사할 때 관용적으로 쓰는 한자 어휘가 선택된다. 진양공주의 눈썹도 역시 “팔자춘산(八字春山)”이라는 관용적인 한자 어휘가 선택되어 포괄적이고 관념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또한 “천지의 정기(精氣)”, “강산의 수기(秀氣)”, “주옥(珠玉)의 정채(精彩)”, “화월(花月)의 고음”과 같이 “~(구체적 사물)의 ~(추상적 특징)”의 형태로 구체적 사물에다 추상적 특징을 결합시키는 구(句)로 진양공주의 아름다움을 표현함으로써 인물의 아름다움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경향을 띠기보다는 추상적이고 비사실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

그러면서 진양공주가 장복을 입고 패옥을 차고 서 있는 모습은 “광한전(廣寒殿) 안에서 직녀가 견우를 서로 만나고” “승화전 위에서 서왕모(西王母)가 여러 신선들을 다시 만난 듯”하다는 고사(故事)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묘사구문은 진양공주의 아름다움을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견우와 직녀 이야기나 서왕모의 이야기를 알고서 그 모습을 상상하여 진양공주의 모습을 견줄 때라야 묘사 대상이 되는 진양공주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인물묘사의 패턴은 유세형의 외모를 그리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⑥에서 유세형의 기개와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 동원되는 어휘

는 대부분 시각적인 색채어나 미사어구이다. 유세형의 아름다움은 “옥으로 만든 나무가 바람 앞에 임하고” “목란이 이슬을 떨친 듯 하며” “지는 해가 장강에 비치는 듯하다”로 표현되어 있고 유세형의 기개는 “겨울달이 어여뻐 여기고”, “여름달이 두려워할 만하다”고 표현되어 있다. 유세형의 아름다움과 기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연 현상을 빗대어 묘사하고 있지만 유세형의 아름다움과 기개와 자연 현상간의 유사성은 그리 크지 않다. 오히려 독자가 보조관념인 자연 현상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상상하고 추상화해야만 유세형의 아름다움과 기개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유세형의 빼어난 눈을 묘사하기 위해 “추수봉정(秋水鳳睛)”이라는 관용적인 한자 어휘가 선택되었고, 눈썹을 묘사할 때는 성인이나 뛰어난 인물의 눈썹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팔채미우(八彩眉宇)”라는 관용적인 한자 어휘가 사용되고 있다. 두 뺨의 모습은 연꽃처럼 아름답다는 “부용쌍협(芙蓉雙臉)”으로 표현되고 붉고 아름다운 입술은 “도주홍순(桃珠紅脣)”이라는 관용적 한자 어휘를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관용적인 한자 어휘는 독자에게 인물의 얼굴 생김새를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하기보다는 보조관념으로 동원된 관용적 한자 어휘에서 환기되는 잔상을 모아 독자가 묘사 대상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더불어 유세형의 빼어난 문질과 표연한 신체는 “단구(丹丘)의 아름다운 봉황”과 “악와(渥洼)의 준마”와 같았다고 묘사된다. 단구(丹丘)에서 살고 있는 아름다운 봉황 이야기와 한(漢) 무제(武帝) 때 악와(渥洼)의 시내에서 출현한 신마(神馬) 이야기를 알아야만 유세형의 빼어난 문질과 표연한 신체가 표상하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가를 대충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유세형의 기질과 자질은 “왕무자(王武子)의 기개가 크고 호걸스러움”과 “진나라 소사(簫史)의 맑고 깨끗한 기질”보다 낫다고 표현되고 있는데, 왕무자나 소사의 고사(故事)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유세형

의 이미지를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장편가문소설의 인물묘사는 세 가지 방식으로 패턴화되어 추상화되는 경향성이 강하다. 첫째로 문장을 연결하는 결합의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문장이 지나치게 반복되고 중첩되어 있다. 둘째로 어휘를 선택하는 측면에서 해석이 필요한 관용적 한자 어휘나 추상적인 어휘 사용이 두드러진다. 셋째로 독자가 전고나 고사를 통해 익힌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인물의 이미지를 재구성하도록 문장을 선택한다. 이런 이유로 장편가문소설의 인물묘사는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어휘를 동원하고 있지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추상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사대부 여성 독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남선녀는 구체적이고 생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독자가 보다 많은 상상을 할 수 있도록 관념적인 이미지로 추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물묘사의 추상화는 사대부 여성 독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선남선녀에 대한 관념을 재현하며 독자의 심미안을 충족시킨다.

##### 5) 텍스트의 상호 관련성과 분석적 독서화

장편가문소설에서는 각기 다른 두 작품의 인물과 내용이 상호 관련적으로 서술되어 독자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두 작품이 전후편의 연작물이 아닌데도 장편가문소설에는 한 작품의 인물이나 사건이 또 다른 작품 속에서 나타나 독자가 두 작품의 상호 관련성을 떠올리게 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이전에 읽었던 원 텍스트의 맥락을 기억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이 일정한 문학적 소양을 가진 독자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두 텍스트를 병치시키면서 작품을 분석할 수 있다는 데서 지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소현성록>과 <조씨삼대록>에는 소황후가 공통적으로 등장<sup>11)</sup>한다.

<소현성록>에서 소황후는 소현성과 석씨의 막내딸로 태어나 정궁인 광후와 후궁인 상미인의 시기와 질투를 참고 인종황제의 어진 왕비가 되어 네 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을 낳고 인종황제와 해로하는 인물로 서술된다. <소현성록>에서 소황후의 이야기는 소씨 기문의 여성들이 겪는 고난과 이를 극복하고 부덕을 체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정되게 된다. <소현성록>의 14권의 1면에서 66면까지는 소황후의 출생과 왕비가 되기까지의 일련의 사건이 계속해서 서술되어 소현성의 딸인 소수주가 소황후가 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조씨삼대록>의 소황후는 이미 왕비로 등극하여 인종황제 곁에서 주인공을 도와주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소황후는 설강에게 모함을 받고 귀양을 가게 되는 유현을 위해서 인종황제에게 직언을 한다. 또한 소황후는 운현의 아내 남씨가 위기에 빠지자 남씨를 궁궐로 피신시켜 혜선공주의 사부로 삼아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곧 <조씨삼대록>에서는 <소현성록>의 소황후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아 소황후를 등장시키고 있다. 이 점은 <소현성록>에서 여덟 살인 소수주의

11) <소현성록>과 <조씨삼대록>에 소황후가 공통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은 조용호, 김문희, 허순우에 의해서 지적되었다. 조용호는 이를 통해 <조씨삼대록>이 국내에서 창작되었으며, 실제작가는 <소씨삼대록>의 내용을 참조했을 것이며, <조씨삼대록>이 <소씨삼대록>의 뒤에 창작되었다고 보았다. 김문희는 <조씨삼대록> 안에 <소현성록>의 내용을 교차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독자의 분석적 독서과정과 지적 만족감을 강화한다고 보았다. 허순우는 <현몽쌍룡기> 연작에서 소황후라는 인물을 <소현성록> 연작으로부터 수용하면서 <소현성록> 연작과 달리 서사적 긴밀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구성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소현성록> 연작을 읽은 독자들이 두 작품을 비교하여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보았다. 조용호, 「삼대록 소설 형성의 기초-사실과 허구의 교직」, 『삼대록소설 연구』, 계명문화사, 1996, 300~301쪽. 김문희, 「조씨삼대록의 서술전략과 의미」, 『고소설연구』 26집, 2008, 161~163쪽. 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의 소현성록 연작 수용 양상과 서술시각」, 『한국고전연구』 17집, 2008, 323~327쪽.

모습이 “흠흠히 녀와시 농상의 안즌 위풍 꺾타여”로 묘사되고 있으며 <조씨삼대록>에서는 “룽풍옥골이 속인과 달나 녀와낭낭이 농상의 좌하신 듯하여”로 묘사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눈썰미 있는 독자라면 소황후가 두 작품에서 연속적이고 동질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독자는 이전에 읽었던 원 텍스트인 <소현성록>의 소황후를 기억해내고 그 소황후가 현재 읽고 있는 <조씨삼대록>의 소황후와 같은 인물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을 때 일차적으로 발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더 나아가 두 텍스트에서 소황후의 역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서사 분석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한편으로 <유씨삼대록>의 인물들은 <여와전>에 대거 등장<sup>12)</sup>하기도 한다. <여와전>에는 <유씨삼대록>의 유세형의 어머니인 이씨 부인과 유세형의 아내인 진양공주, 유세형과 진양공주의 딸인 문창군주, 유현의 아내인 양씨, 양선의 아내인 유현영, 유세창의 두 번째 부인인 설초벽이 등장한다. 특히 <여와전>에서 유세형의 어머니인 이씨 부인을 소개할 때는 “존고의 훈을 덕회여 호령이 등문 밧글 나지 아닌 지니 이곳 승상 문충공 뉴우성의 부인 니시오”하고 소개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유씨삼대록>에서 이씨가 며느리 장씨를 혼계하면서 말하는 “선부인 규훈을 직키고 호령이 중문 밧글 노오지 아닛는니”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sup>13)</sup>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독자는 <여와전>을 읽으면서 <유씨삼대록>의 내용을

12) 이런 이유로 송성욱은 <유씨삼대록>이 <여와전>과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여와전>이 <유씨삼대록>의 파생작이라고 보았다. 지연숙은 <여와전>의 작품세계를 논의하면서 <유씨삼대록>을 포함하여 다른 장편가문소설과 <여와전>의 내용을 비교하고 <여와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송성욱, 「대하소설의 연작 유형에 대한 시론」, 『국문학연구』 제3호, 태학사, 294~296쪽. 지연숙, 『장편소설과 여와전』, 보고사, 2003, 131~136쪽.

13) 지연숙, 앞의 책, 132쪽.

떠올리고 이씨의 성격이나 면모를 관련지어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는 <여와전>에서 문창진군이라는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여와전>에서 진양공주를 문창진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유씨삼대록>을 세밀하게 읽은 독자라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유씨삼대록> 3권에서 유세형이 진양공주를 박대하다가 어느 날 진양공주에 대한 애정을 회복하고 진양공주를 유씨 집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계책을 내는 내용이 있다. 유세형은 흠찬관인 성환을 시켜 임금에게 진양공주의 별인 문창성이 임금의 별인 자미성을 침범한다고 거짓으로 고하게 하여 진양공주가 유씨 집안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처럼 <여와전>은 <유씨삼대록>의 주인공인 진양공주를 문창진군으로 등장시켜 <유씨삼대록>을 읽는 독자의 기억을 되살리며 새로운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독자는 현재 읽고 있는 <여와전>에서 <유씨삼대록>의 인물과 내용을 다시 떠올리며 보다 역동적인 해석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두 텍스트의 의미가 겹치면서 서사의 흐름에 대한 보다 선명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와전>을 읽고 난 후에 <유씨삼대록>을 읽어도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임씨삼대록>에도 <구운몽>을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주목된다. 임창홍의 아내 설소저는 한왕의 겁탈을 피하기 위해 강물에 뛰어든다. 설소저는 남해 용왕과 남악 형산의 위부인에게 구출되어 남악 형산이라는 신선계에 의탁하게 된다. 남해 용왕은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설소저와 시비가 강물에 빠진 것을 알고 이들을 건져 배에 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 장면은 <구운몽>에 등장하는 남해 용왕의 모습과 <임씨삼대록>의 남해 용왕의 모습과 겹치면서 <구운몽>의 내용을 떠올리게 한다. 남악 형산의 위부인은 설소저가 속세와 인연을 끊고 몇 년간 신선계에 들어가 고난을 피하도록 한다. 설소저가 들어가는 남악 형산의 모습은 <구운몽>의 서두

에서 묘사되는 위부인과 팔선녀가 살고 있는 남악 형산과 매우 흡사하다. <임씨삼대록>에서 남악 형산에 거주하고 있는 위부인은 늘 팔선녀를 옆에 데리고 있는데, 이 모습도 <구운몽>의 위부인과 팔선녀를 떠올리게 하고 <임씨삼대록>과 <구운몽>을 병치시킬 수 있게 한다.

또한 설희광의 아내 임소저도 묘월과 군주의 계교에 의해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 그러자 남악의 위진군이 명령을 내려 임소저를 구하게 하고 승산에서 화를 피하게 한다. 이런 과정에서 남악 위진군의 으뜸 제자인 정경패가 임소저를 적극적으로 돕게 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남악 위진군의 제자들이 힘을 합쳐 설소저와 임소저를 돕는데 그 제자 중에 백릉파가 등장하기도 한다.

<구운몽>은 17~18세기 사대부 여성 독자들에게 폭넓게 읽힌 작품이다. <임씨삼대록>은 <구운몽>의 남악 형산의 위부인과 팔선녀, 남해 용왕 등을 차용하여 <임씨삼대록> 안에서 <구운몽>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다. <임씨삼대록>의 도술의 세계와 신선계의 초월적인 모습에서 환기되는 환상적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대부 여성 독자들이 널리 읽은 <구운몽>의 인물인 위부인과 팔선녀와 남해 용왕을 여성 주인공의 조력자로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독자는 <구운몽>의 환상적 분위기를 떠올리면서 <임씨삼대록>에서도 여성 주인공들이 현실계에서 벗어나 고난을 피하는 과정을 환상적이고도 흥미롭게 읽어나가는 것이다.

### 3. 장편가문소설의 서사전략과 가독성(可讀性)

장편가문소설의 가독성은 작가가 사대부 여성 독자층이 지니고 있는 정서나 욕망, 심미안, 지식과 교양과 같은 기대지평을 고려하여 고안한 서

사전략에 의해서 창출되는 독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장편가문소설의 잉여적 대화는 서사구성의 측면에서 서사 세계에 대한 독자의 정서적 거리를 조절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서사전략이다. 다양한 여성상의 재현은 인물의 형상화의 측면에서 사대부 여성 독자들이 지니고 있는 중층적 욕망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독자가 장편가문소설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는 매력이 된다. 내면묘사의 극대화와 인물묘사의 추상화, 텍스트의 상호 관련성은 서술의 측면에서 가독성을 창출하는 서사전략이다. 내면묘사는 독자와 서사 세계의 인물이 유사한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독자가 알게 됨으로써, 인물묘사는 독자가 가지고 있는 심미안에 부합함으로써 가독성을 제고하게 된다. 텍스트의 상호 관련성은 독자가 텍스트에서 자신의 교양과 지식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가독성을 창출하는 서사전략이다.

장편가문소설의 잉여적 대화는 서사구성적 측면에서 독자와 서사 세계와의 감정적 동일시와 거리화를 조정하여 독자가 서사 세계에 몰입하게 하기도 하고 서사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사대부 여성 독자들은 인물이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슬픔과 비애에 쉽게 동화되어 서사 세계에 깊이 몰입한다. 또한 인물의 약점을 들추어내어 농담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드러내는 대화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고 독자가 서사 세계에 대해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장편가문소설에는 모티프나 사건, 인물 유형, 표현 등이 유사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독자는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장편가문소설의 잉여적 대화는 유사하고 반복적인 사건 전개와 중간 중간에 삽입되어 독자가 정서적 측면에서 서사 세계에 대한 몰입과 거리화를 반복하게 하여 텍스트의 가독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장편가문소설의 다양한 여성상의 재현은 사대부 여성 독자들의 중층적

욕망을 여러 경로로 표출하도록 하여 독자의 관심을 텍스트 안으로 끌어 들인다. 장편가문소설은 표면적으로 요조숙녀형 인물 구성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장편가문소설에서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에서 한 발 빗겨서 있는 여성상도 재현되어 있다. 여기서 사대부 여성 독자들이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한 내면적 욕망을 발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장편가문소설의 매력은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사회적 규범과 유교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사대부 여성의 내면 욕망을 중층적으로 서사화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사대부 여성 독자들이 지니고 있는 규범과 내면적 욕망 사이의 갈등과 간극을 간파하여 사대부 여성의 내면 욕망을 드러낼 수 있는 인물과 사건을 구성하여 서사화하고 있기 때문에 장편가문소설에 대한 독자의 호응은 더 커지는 것이다.

장편가문소설의 내면묘사의 극대화는 사대부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내면 풍경에 눈을 돌려 독자가 인물이 느끼는 슬픔과 질투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장편가문소설에서는 가부장제 하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슬픔과 질투의 감정을 동정과 연민의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사대부 여성 독자들이 인물의 심정에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여 자기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한다. 장편가문소설의 내면묘사의 극대화는 사대부 여성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삶의 중압감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독서를 통해 독자들이 잠시나마 삶의 중압감을 내려놓게 하고 위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한다. 곧 사대부 여성 독자들에게 있어서 장편가문소설의 독서는 삶의 애환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장편가문소설의 인물묘사의 추상화는 사대부 여성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물에 대한 미적 기준에 부합하여 사대부 여성 독자들의 심미안을 충

족시킴으로써 가독성을 향상시킨다. 사대부 여성 독자들은 남녀 주인공에 대해 높은 기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선남선녀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존재할 법한 미의 최고치를 묘사하게 한다. 곧 인물을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그리기 위해 원관념인 인물과 유사성이 별로 없는 자연 현상을 장황하게 나열하거나 관용적 한자 어휘를 선택하고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전고(典故), 고사(故事)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은 곧 사대부 여성 독자들이 지니고 있는 심미안과 이름다움에 대한 기대지평을 고려한 결과이다. 선남선녀란 어떠한가 한다는 독자층의 기대지평에 부응하기 위해 인물은 추상적이고 이상적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텍스트의 상호 관련성은 독자가 지니고 있는 지식과 교양을 독서과정에서 확인하게 하여 독자를 장편가문소설의 능동적인 수용자로 만든다. 사대부 여성 독자들은 역사서나 교훈서, 소설 등을 통해 지식과 교양을 습득하여 그들이 읽는 독서물에서 지식과 교양을 확인하며 자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장편가문소설마다 인물이나 사건 등이 상호 관련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독자는 장편가문소설의 독서를 통해 자신의 배경 지식과 문학적 교양을 활용하여 문학적 분석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장편가문소설은 사대부 여성 독자들이 지니고 있는 지식과 교양을 확인하고 드러낼 수 있는 장이 되고 텍스트간의 상호 관련성은 사대부 여성 독자들이 장편가문소설을 지속적으로 애독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 4. 맺음말

본 연구는 장편가문소설에서 전경화되어 있는 서사적 요소들에 주목하여 이러한 서사적 요소들이 독자들의 독서에 어떠한 효과를 끼치고 흥미성을 창출하여 가독성을 제고하는가 하는 점을 논의하였다. 서사구성의 측면, 인물 형상화의 측면, 서술의 측면에서 국문장편소설의 작가는 가독성을 창출하는 서사전략을 고안하여 독자의 관심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장편가문소설의 주 독자층인 사대부 여성들은 장편가문소설의 단순한 독자가 아니라 자신이 읽었던 작품을 필사하거나 창작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장편가문소설의 독자이면서 작가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장편가문소설에 나타난 가독성을 제고하는 서사전략을 통해 장편가문소설의 향유층인 사대부 여성들의 정서나 욕망, 심미안, 지식과 교양 등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현몽쌍룡기> 18권 18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조씨삼대록> 40권 40책, 서강대 소장본.

<소현성록> 15권 15책, 이화여대 소장본.

<유씨삼대록> 20권 20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임씨삼대록> 40권 40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김문희, 「조씨삼대록의 서술전략과 의미」, 『고소설연구』 2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8, 149~178쪽.

김종철, 「장편소설의 독자층과 그 성격」,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아세아문화사, 1994, 433~471쪽.

-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4, 1~256쪽.
- 박일용, 「현몽쌍룡기의 창작방법과 작가의식」, 『정신문화연구』 26권 3호 통권92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31~53쪽.
- 송성욱, 「대하소설의 연작 유형에 대한 시론」, 『국문학연구』 3호, 태학사, 1999, 279~299쪽.
-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13~205쪽.
- 이상택, 「보월빙연작의 구조적 반복원리」, 백영 정병욱 선생 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982, 726~735쪽.
-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43~268쪽.
- 장시광, 「조선 후기 대하소설과 사대부가 여성독자」, 『동양고전연구』 29집, 동양고전학회, 2007, 147~176쪽.
- 정병설, 『안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11~170쪽.
-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인물 고찰」, 『한국고전연구』 1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37~68쪽.
-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 『고소설연구』 4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293~327쪽.
- 조용호, 『삼대록소설 연구』, 계명문화사, 1996, 7~304쪽.
- 조혜란,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1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217~263쪽.
- 지연숙, 『장편소설과 여와전』, 보고사, 2003, 13~277쪽.
-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1~261쪽.
- 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의 소현성록 연작 수용 양상과 서술시각」, 『한국고전연구』 17집, 2008, 319~359쪽.
- 차충환, 「고전국문장편소설 향유자들의 작품 수용의식 연구」, 『국어국문학』 제149호, 국어국문학회, 2008, 473~500쪽.
- 최길용, 『조선조 연작소설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2, 11~106쪽.
- 제랄드 프랭스, 최상규 역, 『서사학』, 문학과 지성사, 1995, 157~217쪽.

ABSTRACT

A Study on Readability Korean Long Piece Novel

Kim, Moon-Hee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discuss how to enhance readability of Korean long piece novels. Surplus dialogues evoke readers' sympathy emotionally while having the readers get absorbed in the world of text and feel a sense of distance on the other hand. Reproduction of various images of women represents layered desire of women in noble families. Although Korean long piece novel seems that it focuses on creating a lady of refined manners superficially, images of women who want to escape from Confucianism are also reproduced. Internal narration makes a reader feel self-pity by reflecting the reader's emotion on a heroine's feeling. Character description satisfies aesthetic senses of women in noble families. Both a hero and a heroine are described in ideological images, which represents ideal ideology for beauty of women in noble families. Correlations of Korean long piece novels are described with mutual 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s and contents in different two works. Readers can improve readability through analysis reading thanks to mutually related narration.

**Key Words** Korean long piece novel, legibility, interest, readability, women in noble families

논문투고일 : 2009. 3. 31  
심사완료일 : 2009. 4. 29  
게재확정일 : 2009. 5. 15